

##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천연가스산업 동향

### 1. 천연가스산업 개황

- 연간 가스 생산량 약 570억 m<sup>3</sup> 이상으로 일부는 수출
  - 가스 확인매장량 1조 8,500억 m<sup>3</sup> (세계 매장량의 1.1%, 세계 17위), 연간 생산량 약 536억 m<sup>3</sup> 이상으로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등에 연간 100억 m<sup>3</sup> 정도 수출
  - 1990년 대 활발했던 천연가스 생산은 최근 매장량 고갈과 신규투자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국영석유가스공사인 Uzbekneftegaz에서 탐사, 채굴, 가공 및 수출 등 전반적인 사업을 영위
  - Uzbekneftegaz는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1992년 설립되어 14개 분야, 226개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음. 1994년 이후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1992~97년 기간 중 약 2억 달러 상당의 외국인 합작투자를 통해 가스와 석유를 개발
- 우즈베키스탄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 지배 우려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부진했으나,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음
- 독자적인 가스 파이프라인이 없어 러시아에 의존
  - 우즈베키스탄의 가스 매장량은 매장량의 한계로 인해 독자적인 파

이프라인의 구축이 어려워 현재는 러시아 Gazprom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수송,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대상 지역이 CIS 국가로 한정되어 있고, 국제시세를 제대로 못받거나 수출대금의 연체 사태를 겪기도 하였음

## 2. 최근 동향

□ 우즈베키스탄은 Gazprom, Lukoil 등 러시아 기업과 천연가스산업 분야에 약 20억 달러의 합작사업을 추진

○ 러시아 최대의 국유 가스기업인 Gazprom은 우즈베키스탄 Ustyurt 지역의 가스전 개발에 10억 달러, 생산물분배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 방식으로 Shakhpakhty전 개발에 1,5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할 계획

- 2002년 12월 Uzbekneftegaz와 Gazprom은 PSA 방식에 따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가스전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지난 4월 Gazprom의 해외부문 담당 자회사인 Zarubezneftegaz는 Uzbekneftegaz와 50:50 합작으로 기존 Shakhpakhty전의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 교체 등 인프라 향상을 위해 1,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음

### Shakhpakhty 가스전

1962년 개발당시 추정매장량이 약 400억 m<sup>3</sup>이었으며, 2002년 시설 노후화 및 채굴 장비 파손 등으로 가스 채굴 및 생산이 중단되었음. 내년부터 재생산시 채굴가능 매장량은 약 80억 m<sup>3</sup> 임

- o LUKoil은 PSA로 남부 Bukhara-Khiva지역의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는 Kandym-Khauzak-Shady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며, 총 투자액은 995백만 달러임
  - 이 중 직접투자금액은 760백만 달러 수준이며, 개발 초기단계의 연간 가스생산량은 40억~50억 m<sup>3</sup>, 최종단계에서는 80억~100억 m<sup>3</sup>에 달할 것으로 예상
- o Lukoil은 Gazprom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에서 전략적 협력협정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내 천연가스 운송망 총괄 등 가스단일관리시스템(single gaz system)을 전담하고 있는 Gazprom과의 협정 체결로 이들 3국에서 개발한 천연가스의 운송망을 확보하게 됨
  - 2004년 12월 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Bukhara-Khiva, Gissar 석유·가스전 등의 개발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

Bukhara-Khiva, Gissar 석유·가스전

천연가스 매장량 2,300억 m<sup>3</sup>, Liquid Hydrocarbons 매장량 1,000만 톤으로, 그 중 가장 큰 Kandym 가스전의 매장량은 1,800억 m<sup>3</sup>에 달함

- Uzbekneftegaz는 석유·가스전 굴착 길이를 2003년 166천 미터에서 2004년 220천 미터로 30% 늘릴 계획
  - o 2004년 1~8월 중 석유·가스전 생산 및 탐사 굴착 길이는 128천 미터로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되었으며, 대부분 Ustyurt,

Bukhara-Khiva, Surkhandarya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이와 관련 중국석유기술개발공사(Chian Petroleum Technoloht & Development Corporation: CPTDC)는 우즈베키스탄 10개 굴착장비(drilling rigs) 현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약 7,000만 달러 투자하여 10개 중 9개는 이미 굴착에 투입되고 있으며, 나머지 1개도 현대화 과정을 거쳐 곧 투입될 예정임
  - o Uzbekneftegaz는 2003년 러시아로부터 5개 굴착장비를 수입하여, 4개는 이미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나머지 1개는 2004년 연말까지 수입될 예정
  - o 현재 Uzbekneftegaz가 운영하고 있는 굴착장비 수는 96개이나 1993년 이후 노후화된 이후 현대화 지연으로 사용기간이 경과한 굴착장비를 폐기하게 되면 2004년 말에는 70여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o 우즈베키스탄은 향후 수년간 약 40개의 굴착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임
- 미국계 석유회사인 Zeromax LLC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정유소에서 2004년 가을부터 2005년 3월까지 카자흐스탄산 원유 40만 톤을 톤당 15달러에 정유하기로 결정
- o 여기에서 생산된 가솔린과 석유는 Zeromax의 우즈베키스탄 자회사인 Uzgazoil이 구매, 우즈베키스탄 국내시장에 공급할 예정
  - 이와 관련 페르가나 정유소는 원유수입 물품세(import excise)를 면제받으며, Zeormax는 관세와 석유제품을 국내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물품세를 면제받게 됨.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국영철도운송회사인 Uzbekistan Temir Iullari는 원유 운송료를 30% 할인

- 페르가나 정유소는 카자흐스탄 남부 Kumkol 유전의 캐나다계 합작기업인 PetroKazakhstan으로부터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가동률은 60%임
- 우즈베키스탄에는 페르가나, 알티아리크(Altyaryk), 부하라 등 3개 정유단지가 있으며, PetroKazakhstan은 2003년 5월부터 이들 정유단지에 매월 35,000톤을 공급하고 있음
- 페르가나, 알티아리크 정유단지는 연료 및 윤활유를 생산하며, 각각 5,500만 톤, 3,200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부하라 정유단지는 양질의 가솔린, 항공용 등유, 디젤 연료 등을 생산하며, 연간 가스 condensate 2,500만 톤의 생산능력 보유

우즈베키스탄 주재원 제공  
책임연구원 차 실(☎02-3779-6678)  
E-mail : [skysilh@koreaexim.go.kr](mailto:skysilh@koreaexim.go.kr)